

리그 2위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내친김에 챔피언 가자”

최종전서 대구 꺾고 2년 연속 PO 진출...창단 이래 최고 성적 27일 광주서 플레이오프...오세일 감독 “남은 기간 철저 준비”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정규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리그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정규 리그 4위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8일 광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최종전 컬처풀 대구와 경기에서 32-19(19-9, 13-10)로 크게 이겼다.

지난 13일 삼척시청에 물수승을 거두고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짓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승리로 13승8패를 기록, 리그 2위까지 올라섰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승리로 포스트 시즌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3, 4위는 준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2위의 의미는 남다르다.

최종전을 앞두고 4위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승점을 가져오면서 순위를 두 계단 끌어올렸다. 이날 SK 슈가글라이더즈(승점25)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물수패, 부산시시설공단(승점25)이 경남개발공사에 28-34로 패하면서 승점을 보태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광주팬들은 핸드볼코리아리그 출범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오는 27

일 광주빛고를 체육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시즌에 이어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부산시시설공단(3위), SK슈가글라이더즈(4위) 승자와 플레이 오프를 치른다. 정규리그 1위는 삼척시청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구단의 새 역사도 썼다. 리그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정규 리그 4위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반 17분 정현희·서아루 등이 연속 골을 작렬한데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한 전략이 먹혀들면서 9점차로 간격을 벌였다. 이후 정현희의 연속 득점을 포함한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10점차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24분에는 무려 13점차까지 앞서며 여유 있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끝까지 박소은은 13개 슈트 가운데 8개를 막아내는 등 60%대 방어율로 승리를 지켜냈다. 10골을 터뜨린 정현희는 경기 MVP에 선정됐다.

주포 강경민은 133득점으로 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여자부 최우수선수(MVP), 득점왕을 차지했던 강경민은 이번 시즌 부상과 선수단 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인타이틀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포스트시즌은 단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18일 광주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판 승부이기 때문에 총력을 쏟을 것이다. 일주일여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플레이오프 경기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신

다면 선수들이 더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도시공사, 광주시체육회, 광주시핸드볼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에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특히 올해 끝까지 박소은과

신인 송해수가 가세한데다 지난해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주전들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신·구조화가 잘 이뤄져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흥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첫 삽 떴다

체육인 연간 5만명 교육 313억 투입 2024년 완공

대한체육회가 장흥에 체육인 교육의 요람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장흥 부산생태공원 내 부지에 들어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가는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에는 총 사업비 313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간에는 연면적 1만1159㎡ 규모의 교육시설, 숙박시설(200명 수용),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최신키, 최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 체육인 연간 5만 명이 교육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기본 소양교육, 체육행정과 과정, 지도자 및 심판, 직 무별 전문과정, 글로벌 스포츠과정, 스포츠리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조감도

십 과정을 운영해 국내 최대의 체육인 양성의 메카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체육인재개발원 부지는 온화한 기후조건과 천

혜의 자연환경, 주변에 리조트와,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 시설이 기 조성돼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스포츠 인재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석 2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향후 장흥 체육인재개발원이 국가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국내외적으로 협력을

통해 공신력 있는 체육인재개발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허정한 전국대회 우승 “4년 만이야”



제10회 국토정중앙배 2022 전국당구대회에서 우승한 허정한(왼쪽)과 이신영. /연합뉴스



제10회 국토정중앙배 2022 전국당구대회에서 우승한 허정한(왼쪽)과 이신영. /연합뉴스

국토정중앙배...여자부 이신영 우승

허정한(경남당구연맹)이 제10회 국토정중앙배 2022 전국당구대회에서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허정한은 19일 밤 10시 강원도 양구군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캐롬 3쿠션 일반부 남자 결승전에서 에버리지 2.0, 하이런 11점을 기록하며 25이닝 만에 조지연(안산시체육회)을 50-34로 꺾었다.

결승전단계 초반에는 접전의 양상을 띠었다. 조구에서 두 선수 모두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팽팽한 균형을 깬 건 허정한이었다. 12이닝에 하이런 11점을 터뜨리며 26-12로 전반 반환점에 먼저 도달했다.

전반 허정한의 에버리지는 무려 2.167이었다.

허정한은 후반전 들어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으며 25이닝 2연속 득점을 끝으로 최종 스코어 50-34로 우승을 차지했다.

허정한은 이번 대회 평균 에버리지 1.677을 기록하며 대회 내내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다.

특히 8강전에서 군 제대 후 복귀전을 치른 조명우(실크로드시앤티)를 꺾었고, 준결승에서 지난 시즌 최종 챔피언에 올랐던 황봉주(안산시체육회)마저 누르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허정한은 “우승을 언제 해봤는지 까마득할 정도였는데, 4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벼타가 나올 때마다 매 순간 집중력을 놓지 않으려고 점수 체크를 계속한 것이 우승 비결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캐롬 3쿠션 여자 결승에선 이신영(충남당구연맹)이 김채연(인천당구연맹)을 42이닝 25-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초반 5이닝까지 단 1득점에 그치며 1-5로 초반 분위기를 잡지 못했던 이신영은 6이닝부터 꾸준히 점수 쌓기에 성공하더니 10이닝 하이런 4점을 폭발하며 10-7로 역전에 성공한 뒤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다. 이신영은 2015년 국토정중앙배 우승 이후 7년 만에 여자 3쿠션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라바리니 감독과 적으로 만난다

9월 세계선수권 폴란드와 한 조

한국 여자배구가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과 이젠 적으로 만난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 네덜란드-폴란드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주 최첨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동 개최국 폴란드,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태국, 크로아티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도쿄올림픽 후 대한민국배구협회의 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한 라바리니 감독은 올해 1월 폴란드 여자대표팀의 새 지휘봉을 잡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제자들과 1년 만에 만난다.

라바리니 감독을 보좌한 스페인 출신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코치가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라바리니 감독의 폴란드와 맞선다.

김연경, 양효진(현대건설), 김수지(IBK기업은행)가 도쿄올림픽 후 태극마크를 반납한 터라 한국 대표팀은 새로운 얼굴로 라바리니 감독과의 일

전을 준비한다.

B조 조별리그는 네덜란드 아른험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치러진다.

올해 네덜란드-폴란드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나라에서 나뉘어 열린다.

24개 나라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여 상위 4개 나라가 2라운드에 진출한다.

16개 나라가 경쟁하는 2라운드 8개 나라씩 두 조로 나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조별 상위 4개 나라가 8강 토너먼트에 올라 우승팀을 가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2관 더 배트맨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더 배트맨, 블랙라이트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문물
- 6관 문물
- 9관 스펀서
- 7관 씨네케틀 메리 미, 안테벨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 8관 씨네케틀 언차티드, 극장판 주술회전 0, 유어 러브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